

제 3회 고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인정식	장경덕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요일) 16:00시 ○ 장소 : 교장실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18학년도 1학년 교복 구매 계획(안) 2. 2018학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2019학년도 교과서 선정(안)			
간 사 (손홍천)	지금부터 제 3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국 민의례) 다음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바쁘신데 운영위원회도 열린지 얼마 안 되어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이 매우 바쁘고 빡빡하게 운 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2·3학년은 전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안학교 로 전환해서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과 반응을 보일지 노심초사 했는데, 어제 서울 위안부할머니 제막식에 1학년 학생을 데리고 다녀 오면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길 하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대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걸 봐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 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 잘 마쳤고요, 고산중에 가서 학교 홍보를 했는데 고산고로 온다고 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2019학년 도 신입생 모집은 큰 걱정을 없을걸로 보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이 학교운영에 많 은 도움을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바라는데로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 교 장 (장경덕)			
간 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 원 장 (인정식)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운 영위원들은 2개월에 한 번 씩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어 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 지원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 겠습니다.		
위 원 장	8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사의 저 회의 회의로 나뉘어 있겠습니다		

간 사	교장선생님으로부터 "2018학년도 1학년 교복 구매 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안건을 2018년 10월 15일 제출하였고, 긴급안건 1건을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출된 심의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18년 10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전원 동의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1안 2018학년도 1학년 교복 구매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라선생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라 선생님	2018학년도 1학년 교복 구매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견본품은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교복구매가 상한이 있는데, 우리 학교 단가는 상한가 보다 훨씬 낮아 문제는 없고요, 구매를 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로 할 것인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가가 1,000만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다고 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하면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울걸로 생각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떨어질걸로 생각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이내이니까 문제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희라 선생님의 설명 잘 들으셨죠? 자료가 미리 갔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샘플 없이 어떻게 선정하였나요?
강희라 선생님	8개 업체에 제안을 받기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작년에 했던 1개 업체만 전주 시내에서 괜찮다고 하는 교복 8종류를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학생들이 골라 개인별로 주름은 어떻게 해주세요 통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1개 업체만 시연을 했구만요?
강희라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 (오현성)	디자인 선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교복을 물려입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위원 (김용락)	예. 그렇지요! 이번 학생들은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의견 교환도 하고 해서 다른 학교와 색다른 교복을 만들어 보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디자인도 바꾸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7개 업체은 와보지도 않고 작년에 했던 업체만 와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저의 생각은 학교에서 심사숙고 해서 디자인이나 재질을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계약방법은 규정상으로도 수의계약 가능하니 수의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은 경험상 일도 복잡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청하니까?

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제 2안 2018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행정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에듀파인의 자료를 보기 쉽게 편집한 자료로 설명...
위원장	행정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규모수선비의 증액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위원 (장경덕)	작년에 설계 할 때 논의를 수 십 차례 거치고 거쳤습니다. 발주기관인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이거는 해주고 저것은 못해주는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직실과 시설관리직이 찢는 샤워장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거는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빠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직실도 아주 오래전에 손보고 했는지,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샤워장은 보일러 기름통이랑 있어서 냄새와 환경이 아주 안 좋아 이번에 리모델링을,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없애고 순간온수기(전기)로 교체하고, 다닥을 높여서 타일을 깔 예정이고, 당직실은 전기난방하고 강화마루로 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단장이 될겁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많은 내용과 별다른게 없어서 위원님들의 동의와 제창 문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동의와 제창합니까?
전위원	위원님들 동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제 3안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2019학년도 교과서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형희진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형희진 선생님	대안학교 교육을 받는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때 학습할 교과서 2과목 만 선정 심의하면 됩니다. 중국어와 기술가정 교과 담당선생님이 협의를 해서 검정인증 교과서를 샘플로 받아서 검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어와 기술가정 모두 천재출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개최한 회의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정한 행위가 혹시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교과들은 비상교육 등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소영)	우리가 결정은 어떻게 하죠?
위원 (김용락)	결정은 선생님들이 전문성도 더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수도 얼마 안 되고 청탁도 하지 않습니다. 혹여 있다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로 부정행위 하지 않는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수년간 다른 학교 위원장을 했는데, 교과서 선정건으로 학교를 많이 나갔습니다. 교과서 선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심의 안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선정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후배들이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신중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 한 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위원 (강소영)	몇 개의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것으로 한다는 건 뭔가 소홀하지 않나요?
위원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위원장 하면서 보면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교수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강소영 위원님의 안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오현성)	우리가 학교에 학생을 보낼때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잖아요. 교과서 선정도 선생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했다고 봅니다. 가르치기 편한 교과서로 선정하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원안가결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운기)	저도 교과서를 선정해봤는데 집필진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좋은 내용의 교과서를 선정하려고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위원장	본 안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의와 제창 묻다.
전위원	동의와 제창함.
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으로 제 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8명)	위원장 인정식, 위원 장경덕 · 김용락 · 백운기 · 정인숙 · 강소영 · 조영란 · 오현성
기록자	간사(서기) 손홍천 (서명)